

2016 Spring

Vol. 88

# 희망 미소



## 당신의 봄을 함께 기다립니다.



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처장

초록과 꽃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나무와 풀들이 녹색 공장을 다시 힘차게 가동하기 시작하는 요즈음입니다. 신년의 분주함 속에 바쁘게 지내는 동안 대지는 조용히 생명의 싹을 준비하고 있었겠지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버물고,  
시때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암울한 식민지 시대를 겪은 시인으로 살아내야 했던 윤동주의 시 '쉽게 쓰여진 시' 중 한 부분입니다. 윤동주의 삶을 다룬 영화 '동주'를 보며 잔잔한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암울한 시국에 아무리 어두워도 좌절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려 했던 청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지난 겨울, 소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어린이와 가족들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느라 다가온 봄을 느낄 수 없으시겠지요. 힘내십시오. 다가오는 여름, 가을, 겨울에도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과 함께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언젠가 완치소식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갈 봄날을 함께 희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 지후네 기억의 보물



2012년 여름. 발바닥에 쌀알만 한 것이 잡혀 티눈인가보다 하고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1센티도 안 되는 작은 덩어리 때문에 절뚝거리는 아이를 보면서 결국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항암’이라는 단어와 “치료 잘하면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만 기억날 뿐. 그 말을 듣고 바로 시작된 서울 병원 생활. 외래 예약을 기다리던 6일은 그동안 지후에게 못해준 것이 너무 많아 이것 저것 할 것이 많았는데 눈치 없이 눈도 많이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영화도 보고 놀이동산도 가고 지후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2차 수술결과 발바닥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기적 같은 얘기를 들었고 항암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하여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병원생활을 했고 1년간의 치료 끝에 병원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치료 받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울, 부산을 오가며 병원을 다닌 덕택에 더 많은 인연을 만났고, 이 모든 분들은 지후네 기억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힘들게 항암치료를 끝내고 집에서 지내던 지후랑 나는 뭔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 듯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불안감이 있을 때 즈음 우연히 알게 된

재단의 미술치료 덕택에 지후도 엄마인 나도, 지후 아빠도 너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몰랐던 지후의 마음 속 응어리들을 선생님과 수업으로 풀어 버리고, 지후가 목소리도 커지고 활발해지면서 어느새 유치원이라는 곳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갈 수 있을까? 보내도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미술치료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다행히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 입학 후 처음 발표회를 할 때 정말 아이가 잘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엄마 기대해!”라며 무대에 올라간 지후는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엉덩이를 흔들고 손가락으로 찌르고 찌르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날의 동영상은 오랫동안 자랑거리가 되었죠.

지후가 아팠던 3년 전 그 겨울은 정말 암담하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지만 이제 정말 추억입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우리 가족에겐 너무나 큰 기억 속의 보물들이고 평생 잊지 못할, 아니 잊지 않을 좋은 기억들입니다.

또래보다 많이 작고 아직은 모든 점에서 느리지만 그런 지후가 이제 7살 유치원에서 가장 큰 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후는 좋아하는 나눔소아암센터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후야, 지금처럼만, 딱 지금처럼만 우리 행복하자! 고마워!

\* 지후는 2013년 유잉육종을 진단받고 2014년 치료종결하였습니다. \*

## 사별상담의 의미

안정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심리상담팀장

2011년 3월 어느 날, 재단으로부터 급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미술치료를 했던 환자의 어머니께서 아이를 만났던 복지사와 미술치료사를 찾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기억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이와 아이의 작품까지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제게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이를 보낸 지 4년 남짓 흘렀는데도 어머니의 기억 속에 아이는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서의 안타까운 마지막 모습은 몇 배의 슬픔이 되어 어머니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기억하는 누군가와 만나고 싶었고, 어머니는 마음껏 기억하고, 아이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 하길 원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미술치료를 권하였고, 어머니는 다른 아이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 같다며 주저하다 거듭된 권유로 미술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와의 만남이 사별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치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별가족들을 만나오면서 치료사는 자녀를, 형제자매를 잃은 가족들이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차원의 상실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의 경우, 아이를 잃고 나서야 자신의 성격과 능력의 참거짓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자식을 잃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보낸 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 하루하루를 의미 없다고 인식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사별과 현재 본인에게 닥친 슬픔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분도 있었고, 큰 상실로 비탄에 빠진 본인이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이해와 배려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저항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또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돌보느라 상실에 대한 슬픔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함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남겨진 자녀의 정서를 염려하기도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미취학인 경우이든 학령기, 청소년이든 아이들 또한 그들 차원의 애도과정을 갖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동생과 사별한 한 아동의 경우, 아무도 동생의 사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의 한 구석에 남아 사별 후 수 년이 지났어도 아이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5~6세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간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여 본인들이 버려질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상실수업’에서 상실을 경험한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30분 동안 울어야 할 울음을 20분 만에 그치지 마라.

슬픔과 애도의 힘이 우리를 치유하고 잃었던 그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것이 바로 슬픔의 은총이며, 슬픔의 기적이다.”

미술치료를 받는 어머니들은 슬픔을 온전히,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애도과정의 시작이고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통로’가 막혀있는 경우에 슬픔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별가족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는 상실의 경험을 이해하고 슬픔의 과정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슬픔을 표현할 수 있다면 자기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기인식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기를 만나게 되는 과정으로 안내하여 궁극에서 자신의 삶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별상담의 궁극의 목적일 수 있는 것으로 상실로 인한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상으로의 복귀와 성숙한 애도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는 2011년부터 사별가족을 위한 미술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매년 4월 셋째 주 토요일에 사별가족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부재를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 받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며칠 전, 사별상담 중에 종결을 앞둔 어머니와 이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날 만큼은 곁에는 없지만 마음 깊은 속에 있는 내 아이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 하는

‘우리 아이들’만의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술치료 시간을 통해 어머님들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 아이들과 만나고 스스로와 만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이 어머니들 각자의 애도과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단의 치료사로서 가족들의 상실과 슬픔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고자 하며, 미술치료를 통한 애도과정에 기여이 저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별가족모임 참가안내**

- 일 자 | 2016년 4월 23일(토)
- 참가대상 | 사별한 소아암 어린이 부모 및 형제자매
- 장소/문의 | 닥터스플레이스(서울시 종로구 소재) / 02-766-7671  
회문산 자연휴양림(전북 순창군 소재) / 061-375-7671  
허브랑 아생화 체험학습원(부산시 금정구 소재) / 051-635-7671

##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선택 받은 자



남은채

1995년생  
2008년 3월 악성림프종 진단  
2010년 8월 치료종결  
2016년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 재학 중

안녕하세요. 2015 완치자 활동가 남은채입니다. 저보다 더 힘든 과정을 이겨낸 친구들도 많고 대단한 분들도 많은데 제 이야기를 하려니 부끄럽네요. 그래도 저 또한 치료 중 완치자분들을 보며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입학한지 3일 만에 학교생활이 아닌, 병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검도를 배워 대회에 출전하여 상도 타고 학교 운동회에선 항상 달리기 선수로 뽑혔던 제게 병원이란 먼 존재였고, 암이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팔에 혹이 생겼고 “검도하다 다쳤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혹은 점차 커져갔고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각성을 느낀 부모님은 저를 이끌고 여러 병원을 찾아 다녔고, 저는 MRI, 조직검사, 골수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혹이 아닌 림프종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TV속에서만 보던 환아들이 가득했고 몇 시간 전만해도 등교준비를 하던 건강한 내가 이곳에 입원하게 된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라며 나 자신을 이곳과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부모님은 제게 림프종임을 조심스레 알려주셨고 금방 치료받고 돌아갈 수 있다고 작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제가 암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오는지 원망하고 슬퍼하며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을 시간도 없이, 곧바로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육체적 고통도 힘들었지만 제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전과 달라진 나를 인정해야만 하는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어느 하나도 혼자 할 수 없어 하찮게 느껴지는 나를 받아들이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항암치료와 끝이 보이지 않던 병원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탱해준 존재는 바로 ‘가족’과 ‘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24시간 제 곁을 지켜주시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동생은 초등학교에 입학해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아픈 언니에게 부모님의 관심을 뺏겼지만 말게 자라주며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 그리고 공부는 가족 외에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병원생활을 하며 오히려 공부에 대한 열정이 커졌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EBS인터넷강의와 무지개학교 수업을 들으며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고, 몇 달 만에 하는 공부이기에 알아가는 자체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특히, 투병 중 우연히 읽게 된 한미야의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을 통해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저자를 보며 지금은 갇혀있지만 앞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희망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간호사언니들과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하며 즐겁게 보내기도 했지만 저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체력이 약해 게임도 할 수 없어 항상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달라진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저만의 방법은 펜팔이었습니다. 태국, 싱가포르, 미국, 스위스 등 10여 개국의 친구들과 펜팔을 하며 청소년시기에 친구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외로움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구글 번역기를 돌릴 정도로 영어실력이 좋지 않았지만 계속하다보니 스스로 영작을 해서 보낼 정도로 영어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인 친구가 있다면 펜팔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 치료가 끝나고 ‘과연 내가 남들처럼 생활할 수 있을까? 친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등의 두려움을 안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다행히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와 같은 반이 되었고 저의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담임선생님을 만나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팠던 아이’라는 인식에 갇히고 싶지 않아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교 1등을 하기도 하고 2013 서울특별시 시민상 대상, 대한민국 인재상, 2014 제야의 종 행사 시민 대표 등 제게 정말 과분한 상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암은 내 인생을 망친 걸림돌이 아닌 내 인생을 누구보다 특별하게 만들어준, 나에게 제 2의 인생을 살게 해준,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향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지만 치료받던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치료받고 난 이후 체력이 약해져서 고3 때 다른 친구들만큼 튼튼하지 못한 제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믿음은 오히려 림프종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은 겪지 않은 림프종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산을 넘으며 얻은 힘은 제 자신을 더욱 성장하게 하는 뒷받침이 되었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기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상황이 다르다고 탓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자 활동가를 통해 저 말고도 많은 완치자 분들이 비슷한 일을 겪어왔고 각자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이겨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치료를 받으며 힘든 길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또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우리는 남들은 겪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고 큰 사람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힘내세요!!

## 나 행복한 사진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영 흡소핑 '아임쇼핑'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최성진입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어머니께서 카메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장면을 담아보고자 사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원 동기의 소개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알게 되었고, 2012년부터 사진 찍는 재능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만나는 소아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은 아프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긍정적이고 밝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내내 오히려 제가 더 좋은 에너지를 받아 참 행복했습니다. 또 소아암 어린이 홍보대사의 다양한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데, 본인의 힘든 치료 과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아암 어린이가 가족을 위해 2~3시간 동안 뜨거운 조명과 눈부신 플래시 앞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참 대견스럽습니다. 그런 모습에 반해 5년 째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왜 찍을까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저에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순간은 바로 아이가 해맑게 웃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힘든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소아암 어린이의 웃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프레임에 담을 수 있어 저는 가장 호화스러운 사진가입니다. 더불어 시간이 지나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이 제가 찍은 사진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고통의 시간'이 아닌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 되길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사진가로서의 저의 행복을 위해, 또 소아암 어린이가 가족들의 힘든 시간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되기 위해 계속해서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해맑은 아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하루빨리 완치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최성진 작가는 2012년부터 재능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



##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일

저는 2011년부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긴 시간이었네요. 처음 소아암 인식개선 인형극 <우리들의 친구 다람이>로 자원봉사를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들의 친구 다람이>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소아 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아암 환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형극인데 대본에 맞춰 많은 시간 연습을 했어요. 유치원에 가서 직접 공연할 때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인형극에 집중하는 모습이 신기하고 놀랍고 귀여웠던 기억이 나네요.

소아암 환아들의 형제, 자매가 참가하는 <형제캠프>. 전 두 번이나 자원봉사자로 참가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즐길 거라 생각했지만 저 또한 완치자이기 때문에 치료기간 동안 저의 언니와 동생이 겪었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캠프에 참여했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지난여름 두 번째로 형제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욱 부담되었던 두 번째 캠프는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한 것도 좋았지만 더욱 좋았던 것은 다른 봉사자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완치자 활동가>를 하며 완치자 친구들과 함께 진로 탐색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첫 진단을 받은 이후 진로, 진학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시절도 많았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과 나의 성격에 맞는 진로를 찾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아암을 겪으며 생기는 많은 고민들은 주위에 아프지 않은 친구들과는 속 시원히 나눌 수 없어 혼자 고민하며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았는데 매주 완치자들과 만나면서 얘기도 잘 통했고, 서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 해를 뿌듯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치료종결파티, 완치자로서 참가했던 자기성장 프로젝트, 모든 프로그램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숨 가쁘게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나를 잊지 않고, 주위를 볼 수 있었던 것이 자원봉사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보니 재단에서 약 240시간 자원봉사를 했더라고요. 저도 사실 좀 놀라웠고, 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좀 낸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 주변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 이지혜 봉사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습니다. \*

## 한사랑의집에서는

### 소중한 추억이 생겼어요



서울과 대구 우체국 한사랑의집에서는 지난 12월, 가족이 함께 하는 공연관람으로 뜻 깊은 연말을 보냈습니다. 대구에서는 24일,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매직콘서트로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서울에서는 29일, 서당 판타지 뮤지컬 '환장 개똥이'로 신나고 재미있는 한자세상을 만나고 왔습니다. 함박미소 가득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 분들의 얼굴이 선물 같았던, 멋진 날이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경기고등학교동창회, 극단 와우뮤지컬그라운드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시즌, 전남과 대구 우체국 한사랑의집에서도 병원과 쉼터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나누며 크리스마스를 함께 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완치자 이미래양이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쿠키가 선물로 더해졌다고 합니다.



\* 본 프로그램은 경기고등학교동창회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새해인사를 나누는 명절, 설날을 병동에서 보내야 하는 소아암 환자 가족들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 대구, 전남, 부산 지역마다 병원을 방문하여 떡과 명절선물 나눔으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설레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전통 한과만들기 체험, 전남에서는 입원 중인 어린이들과 설맞이 한복촬영을 함께 진행하여 더욱 명절다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2016년, 활기차고 지혜로운 붉은 원숭이의 기운이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은 대한민국ROTC중앙회, 한국감정평가협회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완치자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동지&정월대보름 파티

서울 우체국 한사랑의집에서는 완치자 어머니들이 쉼터에 머물며 치료 받고 있는 환자 가족과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동지에는 따뜻한 팔죽과 소고기 완자를, 2월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나물, 부럼 등을 함께 만들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완치자 어머니들의 정성 덕분에 더 따뜻하고 함께하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지원 결정  
환아

2015. 12. ~ 2016. 2.

**이식비**

**고려은단**

장○석(급성림프모구백혈병) 1,000만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지(황문근육종) 600만원

이○진(황문근육종) 400만원

이○우(신경모세포종) 1,000만원

장○석(급성림프모구백혈병) 1,0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이승환)**

전○혁(중증재생불량빈혈) 500만원

**램리서치코리아**

강○안(수모세포종) 500만원

신○찬(중증재생불량빈혈) 1,000만원

**문승민 후원자**

이○진(황문근육종) 1,000만원

**삼성물산**

박○늘(만성골수성백혈병) 9,124,630원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우(신경모세포종) 1,000만원

**야놀자(이수진 대표)**

오○아(재생불량빈혈) 1,000만원

**우체국공익재단** 각 500만원

강○안(수모세포종)

박○늘(만성골수성백혈병)

신○찬(중증재생불량빈혈)

오○아(재생불량빈혈)

**포스코에너지**

전○혁(중증재생불량빈혈) 1,000만원

**한샘**

원○지(황문근육종) 1,000만원

**KB국민카드**

배○무(만성육아중질환) 2,000만원

**재활치료비**

**나향**

윤○렬(급성골수성백혈병) 145만원

**드림팩토리클럽(이승환)**

김○진(급성골수성백혈병) 240만원

**롯데카드**

김○호(버킷림프종) 240만원

**메리츠화재**

박○호(뇌종양) 1,0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

박○후(급성골수성백혈병) 2,896,650원

**우체국공익재단**

명○민(원시신경외배엽종양) 500만원

**코리아테크**

백○비(뇌종양) 210만원

**해피빈재단**

명○민(원시신경외배엽종양) 500만원

**홍현의 후원자**

박○후(급성골수성백혈병) 2,087,550원

**2PM 준수**

윤○진(급성림프모구백혈병) 300만원

**치료비**

**김건(김진한) 후원자**

서○울(급성림프모구백혈병) 2,106,682원

**김연아 가족 후원자**

하○우(급성림프모구백혈병) 150만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이(골육종) 2,338,460원

김○희(골수이형성증) 300만원

서○울(급성림프모구백혈병) 5,893,318원

이○연(신경모세포종) 800만원

전○혁(중증재생불량빈혈) 690만원

**늘푸른교육**

김○욱(뇌종양) 4,122,470원

**램리서치코리아**

김○한(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김○림(간모세포종) 800만원

박○하(급성골수성백혈병) 800만원

이○효(간모세포종) 500만원

이○빈(중증재생불량빈혈) 800만원

임○근(급성골수성백혈병) 780만원

**램리치코리아(임직원)**

권○수(급성골수성백혈병) 2,416,040원

**롯데카드**

김○이(골육종) 2,661,540원

**삼성물산**

반○호(급성골수성백혈병) 800만원

**삼성전자로지텍**

김○혜(급성림프모구백혈병) 200만원

홍○효(뇌종양) 200만원

**소울바이트(법조인밴드)**

경○희(급성림프모구백혈병) 7,211,805원

**씨게이트코리아**

정○근(림프모구림프종) 5,483,729원

안양초등학교  
임○근(급성골수성백혈병) 20만원

이베이코리아  
경○희(급성림프모구백혈병) 742,910원

익명 후원자  
하○우(급성림프모구백혈병) 3,317,620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카드지부  
권○수(급성골수성백혈병) 2,116,373원  
김○준(망막모세포종) 800만원

효성연양공장  
강○안(수모세포종) 800만원

토탈소프트뱅크  
김○현(성상세포종) 427만원

퇴직공무원 행복나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후(비호지킨림프종) 7,023,070원

포스코에너지 각 1,000만원  
김○한(급성림프모구백혈병)  
장○영(황문근육종)

해피빈재단  
김○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 8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  
유○은(중증재생불량빈혈) 300만원

SK이노베이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 800만원  
권○재(급성림프모구백혈병)  
윤○원(림프모구림프종)

## 간접치료비

### 일시간접치료비

故 이소희 기금  
한○혁(급성림프모구백혈병) 30만원

삼성전자로지텍  
이○연(신경모세포종) 1,191,000원

우체국공익재단 각 100만원  
김○희(골수이형성종)  
문○환(배아세포종)  
이○서(급성림프모구백혈병)

이노션 각 100만원  
김○림(간세포종)  
박○늘(만성골수성백혈병)  
방○호(신경모세포종)

변○찬(급성림프모구백혈병)  
이○빈(중증재생불량빈혈)  
이○호(황문근육종)  
이○솔(유양육종)  
임○근(급성골수성백혈병)  
장○석(급성림프모구백혈병)

효성 연양공장  
손○준(신장암) 200만원

피피디  
신○찬(중증재생불량빈혈) 1,033,000원

EXO카이  
임○순(급성림프모구백혈병) 100만원

### 정기 간접치료비(신규)

기업은행노동조합  
강○주(유양육종)  
김○연(급성림프모구백혈병)  
김○원(급성림프모구백혈병)

박○우(신경모세포종)  
홍○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

KDB생명  
권○재(급성림프모구백혈병)  
김○중(간세포종)  
김○하(급성림프모구백혈병)  
문○현(악성림프종)  
박○준(골육종)  
서○연(급성림프모구백혈병)  
이○욱(급성림프모구백혈병)  
윤○지(망막모세포종)

한국거래소노동조합  
양○름(신경모세포종)  
옥○은(급성골수성백혈병)

## 가발

하이모  
김○현(골육종)  
신○름(뇌종양)  
오○민(황문근육종)  
유○재(재생불량빈혈)  
전○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  
정○림(신경모세포종)  
정○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  
조○환(생식세포종양)

홍명보장학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정(급성림프모구백혈병)  
서○주(급성림프모구백혈병)  
엄○지(급성림프모구백혈병)  
조○기(수모세포종)  
조○나(기형종난소암)  
최○인(급성림프모구백혈병)  
최○나(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황○은(악성림프종)  
황○민(골육종)

>>> KCLF

신규  
후원자  
소식

2015.12.~2016.2.

소아암 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후원

강동수 강두경 강민주 강지훈 권민아 권효정 권희정 길민하 김가현 김경민 김관우 김기문 김명진 김미란 김미정 김미현 김민 김민경 김병훈 김선영 김선주 김성기 김수빈 김승범 김승현 김승현 김영길 김영호 김예자 김종실 김지혜 김현우 도호영 민지에 배바린다 박경민 박미정 박상화 박서연 박은영 박은진 박중정 박형태 백광현 백영태 서경재 서병학 서주영 송유빈 신동욱 신윤제 신은경 신지연 심지선 안경순 안은지 양진호 유동훈 유수미 유영상 유찬중 이계향 이다인 이다정 이명수 이모란 이분화 이상익 이선례 이수나 이시현 이연아 이영석 이영준 이은미 이일선 이재희 이정재 이주아 이지원 이진욱 이찬주 이창림 이채은 이태현 임명순 임주찬 임형준 장성례 정아름 정연옥 정영서 정인애 정현빈 정형석 정희영 제효준 조선정 조승현 조영수 조은 주선영 지성욱 채상혁 채영주 최교운 최윤경 최윤영 최지원 하유미 하윤지 한상희 한성진 한주현 허찬영 홍만표 홍성호 황진모 황현준 HAN KITAEK 야구사격노리

일시후원

강민휘 강용순 강재영 공소영 권운주 권현섭 김나경 김대원 김선이 김성준 김성태 김영갑 김우기 김원형 김은성 김재수 김주영 김태연 김학균 김한수 김혜경 나혜란 남광호 노강민 노영호 류근하 문결문혜 박승환 박영훈 박중수 박진환 성욱제 소경희 손보라미 스티치 안 지 오정환 유희은 이가는 이경훈 이노선 이도영 이률희 이소영 이이레 이지연 이현주 정승훈 조수현 조현주 최진욱 최효영 한성진 홍정표 황임수 (주)인비트윈 Authentic Music 부산대노여노문97다모이 서울도봉초등학교1학년2학년 아픈아이들에게 청소명이 한양대학교유기나노공학과고분자세탁 함께하는치과 현명호교수님제자일동

후원물품

김동현 과일 김지후가족 배낭, 스냅백, 손수건 라이카코리아 자전거 제주신라호텔 프로그램비 (주)파리크라상 크리스마스트리 한국백크만몰(주) 크리스마스 선물상자 현대리바트(주) 싱크대 (주)호수의나라수오미 물티슈

헌혈증 (장)

강민(11) 광성규(5) 김도빈(15) 김병철(17) 김영운(113) 김준태(1) 김형섭(16) 노현재, 노현서(24) 박중구(10) 박흥기(51) 배상민(4) 백한일(10) 서지수(1) 신영남(49) 신용수(100) 안창현(1) 유병선(10) 유창균(30) 윤진리(7) 이은주(11) 이의현(5) 이의현(4) 이정화(3) 이창노(50) 이형준(20) 이형훈(21) 임상민(6) 임정균(5) 임태욱(15) 장태기(10) 전병조(1) 정나리(40) 정성(8) 정소라(5) 정재윤(3) 조하늘(2) 차민재(3) 최의탁(6) 최진태(107) 한수정(2) 허재성(1) 홍혜정(7) 가좌고등학교(141) 강원대학교(700) 경북경찰청기동1중대(20) 녹십자(2000) 다음따뜻한세상만들기(85) 대구과학대학교국방기술행정과(103) 동국제약주식회사(80) 모두투어네트워크(46) 뮤지컬<스토리오브마이라이프>(321) 버룩시장(431) 보령중보재단(100)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30)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군단(22) 서울시청(517) 송곡고등학교(47) 송파구시설관리공단(36) 양산시시설관리공단(25) 전남여성플러자(32) 제7882-301부대(60) 춘천클라이머스(35) 코오롱위터엔에너지중량사업소(24) 한국도로공사(10000) 한국방송통신대학교(300) 현사모(159) 현대엘리베이터(137) 1968-301대대(300) CJ대한통운(600) KB국민은행30기산업행원15팀(7)

후/원/계/좌

국민은행 : 001-01-2353-890  
농협 : 029-01-176943  
새마을금고 : 9002-1557-6919-6

신한은행 : 140-000-762725  
우리은행 : 112-04-112571

우체국 : 012989-01-003327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KCLF 희망소식

## 부산 치료종결파티 '나눔'



2015년 12월 15일. 오랜 시간 힘든 치료를 이겨낸 어린이들을 축하해주고 그동안 응원해 준 고마운 분들과 함께 하는 치료종결 행사가

있었습니다. 식전행사, 치료종결메달 수여, 축하공연으로 이루어진 본 행사에 120명의 소아암 환자 및 가족, 의료진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2016 학습지원

재단에서는 2008년부터 장기간의 치료과정으로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소아암 어린이의 가정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 40명의 학습습관 개선 및 학습능력 향상을 응원합니다.

\* 본 사업은 EXO카이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 우체국공익재단 위탁공익사업 선정

우체국공익재단은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의 심리 사회적 어려움 경감을 위해 '우체국 한사랑의 집을 통한 소아암 환자 지원사업'을 2016년 위탁공익사업으로 선정하여 총 3억8백만원을 지원합니다. 후원금은 우체국 한사랑의 집 운영 및 경제적 지원, 미술심리상담, 문화 체험 사업비로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 2015 치료종결자 지원 '내일을 꿈꾸어라!'



재단에서는 매년 치료를 종결하는 어린이들을 축하하는 메달과 선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9개 병원, 621명의 어린이들이 메달의 자랑스러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어린이들의 내일이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 본 사업은 신한금융그룹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 꿈 그리미 워크숍



한국증권금융꿈나눔 재단은 소아암 어린이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꿈 그리미 워크숍 '나의 꿈을 그려보아야.' 사업을 후원합니다.

## 피피디, 후원금 전달



임직원이 함께 모은 후원금과 직접 만든 유기농 쿠키를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 KCLF 희망소식

## 크리스마스 선물 지원



한국백크만쿨터에서는 소아암 어린이들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기원하며 ‘백구만씨의 1℃ 선물상자’ 80개를 지원했습니다.

## 효성연양공장, 후원금 전달



효성연양공장은 2010년부터 매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도 임직원분들의 소중한 후원

금과 회사의 매칭그랜트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를 전달하였습니다.

## 이승환 홍보대사, 상금 기부



이승환 홍보대사는 지난해 9월 개최된 콘서트 ‘이승환 빠데이 26년’으로 제3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콘서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상금은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재단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 보령제약그룹 보령중보재단, 후원금 전달



보령제약그룹, 보령중보재단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나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

년에도 그룹 임직원이 함께 모은 헌혈증과 후원금을 전달해주었습니다.

## 윤형렬과 함께하는 나눔콘서트 ‘동행’



1월 12일, 뮤지컬 배우 윤형렬 씨는 지난 2015년 10월 4일 진행된 나눔콘서트 ‘동행’ 수익금 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4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 콘서트는 윤형렬 씨를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가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해 재능기부로 준비되는 뜻 깊은 콘서트입니다.

## 호수의나라 수오미, 후원금 및 물티슈 전달



호수의나라 수오미에서는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행복나눔기부금’ 1,032,817원과 함께 순둥이 물티슈 200팩을 전달했습니다.

### 에이스건설 사우회, 후원금 전달



에이스건설사우회는 함께 모은 후원금을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전달하였습니다.

### 미래에셋생명보험, 후원금 전달



1월 20일, 미래에셋생명보험에서는 530여 명의 FC들이 보험 계약 1건당 500원씩 적립하여 마련된 기금과 회사 매칭 그랜트로 조성된 후원금 30,309,000원을 전달했습니다.

### 한샘, 후원금 전달



12월 14일, 한샘 임원들은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1,0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 한마음혈액원 후원 협약

한마음혈액원은 헌혈자가 '헌혈기념품' 중 '기부권'을 선택하면 1장 당 4,000원의 후원금을 적립하여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부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소아암 어린이를 후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소울바이트, 자선공연 후원금 전달



1월 10일, 사범연수원 43기 락밴드 '소울바이트'에서 연말 자선공연을 통해 후원금 348만원을 전달했습니다.

### 기금전달

대한민국ROTC중앙회, 램리서치코리아, 문승민, 범천정밀,故이소희, 착한돌잔치, 한국감정평가협회

### 하나카드, 더블나눔이벤트 후원금 전달

하나카드는 더블나눔이벤트를 진행하여, 지난 10~11월 회원들의 후원금액과 동일한 금액 2,073,576원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 KCLF 희망소식

### 스타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 김수현 중국 팬클럽 '金秀贤中国粉丝团'에서는 2월 16일, 스물아홉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 디시인사이드 마마무 갤러리에서는 2월 21일, 솔라의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 100만원과 생일을 상징하는 현혈증 221매를 기부했습니다.
- 디시인사이드 정준영 갤러리에서는 2월 21일, 스물여덟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생일을 상징하는 해피빈 쿵 16,221개(1,622,100원)를 전달했습니다.
- 몬스타엑스 아이엠 팬클럽에서는 1월 26일, 스물한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기부금을 보내왔습니다.
- 박서준 팬블로그 '눈우주'에서는 12월 16일, 스물여덟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 보이프렌드 팬클럽에서는 1월 2일, 이정민의 스물세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 슈퍼주니어 강인 팬클럽은 1월 17일, 서른두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현혈증과 후원물품을 전달했습니다.
- 임시완의 팬 일동은 12월 1일, 스물여덟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현혈증을 기증했습니다.
- 에이핑크 정은지 팬블로그 '은지사랑비'에서는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여 기부금을 보내주었습니다.
- 2PM 준호 팬페이지 '누너건', '누네상스', 'SEASON'은 1월 25일, 스물일곱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ALL FOR ONE'이라는 이름으로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 2PM 준호 팬페이지 'The days'는 1월 25일, 스물일곱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생일을 상징하는 기부금 125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 B.A.P 종업 팬페이지 'Moonlight'에서는 2월 6일, 스물두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생일을 상징하는 후원금 206만원과 선물을 기부했습니다.
- B.A.P 종업 관계자 '@umn0206'에서는 2월 6일, 스물두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 B.A.P 팬은 2월 22일, 미니앨범 'CARNIVAL' 발매를 기념하여 해피빈 쿵을 전달했습니다.
- EXO 공식 팬클럽 'EXO-L'은 11월 27일, 찬열의 스물네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현혈증 314매를 기증했습니다.
- EXO 공식 팬클럽 'EXO-L'에서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물로 앨범 100매를 보내왔습니다.
- EXO 찬열 팬페이지 'MELLOW VOICE'에서는 11월 27일, 스물네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 EXO 카이 팬커뮤니티 '종달새'에서 1월 14일, 스물세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해피빈 쿵 230,000개(2,300만원)를 보내왔습니다.
- EXO 카이 팬페이지 '니즈메이트' 와 '소햇카이'에서는 1월 14일, 스물세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 iKON 정찬우 팬클럽에서는 1월 26일, 열아홉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 WINNER 팬클럽에서는 1월 11일, 첫 컴백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 완치자활동가를 소개합니다!



2015년 4월, 지역별로 완치자활동가 모임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치료중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여러 활동에 참여한 활동가들.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프로그램들이었기에 더 많이 배우고 느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자신을 위해, 치료받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 멋진 활동 부탁드립니다.

치료 받는 중에 온 가족들이 함께 시간 보낼 기회가 흔치 않는데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좋았다. - 연날리기 참가자 -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주도적으로 한 활동이라 특별했고, 결과물을 보고 좋아하는 환아들을 보니 느낌이 남달랐다. - 희망별빛 심터 꾸미기 참가자 -

형제캠프는 아픈 아이로서의 나의 입장에서만 기억되던 치료과정 속에 동생들도 함께 있었고, 동생들 역시 힘들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 형제캠프 참가자 -

우리가 기획하고 구성한 내용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만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다. 완치자 활동가는 완치자들끼리의 모임일 뿐 아니라 치료중인 아동들에게도 좋은 교류처가 되는 것 같아 지속되면 좋겠다. - 늘봄데이 참가자 -

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잊혀지는 기억,  
 마냥 행복했던 기억은 아니지만 나를 한 뼘 더 성장하게 한 특별한 경험!  
 완치자로서 치료 중인 환아와 가족들에게 힘을 전하고 싶은 완치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 대 상 : 만18세 이상의 소아암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종결자
- ▶ 활동내용 :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 나의 치료 경험을 나눕니다.
- ▶ 지역별 신청문의 : 서울 02-766-7671 / 광주 061-375-7671  
 대구 053-253-7671 / 부산 051-635-7671

마/음/풍/경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어 합주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기타를 치고 있어요.

요즘 진짜로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대학생이 되면 사람들 앞에서 공연도 해보고 싶어요.

약성림프종으로 치료받아 온 19살 승민이는 2014년 12월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발행인 / 오연천 편집인 / 서선원 발행처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0307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40-7 인설빌딩 4층 전화 / 02)766-7671(대) 팩스 / 02)766-7674

🏠 [www.kclf.org](http://www.kclf.org) ✉ [cancer@kclf.org](mailto:cancer@kclf.org)